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급

###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시민 1만6781명 혜택...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연중 상시 모집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 전주 시민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수도·가스·자동차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정과 상가, 아파트단지, 자동차 등 참여 대상 1만 6781명에게 총 2억6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6466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으며, 이는 연간 20년생 소나무 145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가정 연 최대 13.5만 원, 상업시설 연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의 경우 참여 시점 기준 주행거리 대비 참여 종료 시점의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연중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매년 2~3월경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

도·가스 고객센터 혹은 수용기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후 주소나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최근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4기 양성교육 수료식을 갖고 총 13명의 시민활동가를 배출했다.

##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탄생

### 전주시, 4기 수료생 13명 배출

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중요성을 알릴 전주시 환경 홍보대사 13명이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최근 총 이틀 과정의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양성교육'을 거쳐 전주시 쓰레기 처리 실태 현황 및 분리배출 필요성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게 될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4기 수료생 13명을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민활동가 교육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생활폐기물 감량의 필요성 등 시민활동가로서 필요한 소양교육이 진행됐다. 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시민활동가들이 직접 눈으로 전주시 폐기물 시설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시는 그동안 약 50명 정도의 '1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 등을

활용한 각종 홍보를 통해 이웃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13명의 시민활동가들도 앞서 활동 중인 활동가들과 함께 각종 홍보활동에 참가해 전주시민들의 생활폐기물 감축 의식 개선을 돕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한 수료생은 "요즘 들어 기상이 변이 심각함을 보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1회용품 줄이기는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새로 참여한 활동가분들도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 13~18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시행

전주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청소년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드름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외적·심리적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사업'을 제시했으며, 최근 2년간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13세~18세 사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여드름 진단자이다.

시는 총 2차례에 걸친 선정 심의 후 대상자에게 1회 5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치료비를 지

원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교육지원청과 전주시 중·고등학교, 전주시 생활복지과, 3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업 안내·홍보 및 관련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인 여드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으며, 사전 예방 교육까지 펼쳐 전주시에서 시작한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치매 조기검진 의료기관 지정·협약 나선다

### 전주시보건소, 15일 체결키로

전주시가 2024년 새해에도 전주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의 치매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검진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15일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치매 검진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될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40개 의료기관과 치매 조기검진 협약을 맺고 만 60세 이상 전주 시민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과의 협약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지정 절차에 나서게 됐다.

현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 39곳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시는 이를 검토한 후 자격 및 절차 차상 하자가 없는 곳에 대해서만 치매 조기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만60세 이상 전주 시민은 전주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약의료기관에서도 연 1회 무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협약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원인 판정이 필요한 경우 감별검사 가능한 협약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네방네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등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관내 병·의원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공중케이블 정비 전 모습



공중케이블 정비 후 모습

## 전주시, 6개소 대상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전주시는 올해 모래내시장 일원 등 6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원 44억 원을 투입해 공중케이블 정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인 '2023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선정됐으며, △모래내시장 일원 △여의동 주민센터 일원 △인후옥거리 일원 △어은골 일원 △호지3동 주민센터 일원 △완산소방서 일원 6개

소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전파관리소,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합동점검 및 정비방안,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협업해왔다.

그 결과 △세션·사선 철거 △노후 지주 교체 △차진 공중케이블 정비 △인입선 통합 등 지주 3550본과 케이블 128km 규모의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했다. /김옥기 기자

## 완산선관위,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안내 설명회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전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전주시제3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주시완산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참석을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의회

**임실군의의회**  
 IMSIL-GUN COUNCIL

이성재

의장

정일윤

부의장

김정현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

양주영

의원

장종민

의원

정철성

의원

김왕중

의원